

현대시 비기출 N제

- 문제와 해설은 최대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 문제 소스는 4개년 교육청(21년~24년) + 5개년 사관학교(21학년도~25학년) 총 20개 시험지 입니다.
- 문제 옆 숫자가 문항 출처입니다.
Ex) 2103 = 21년 3월 실시된 교육청 시험 | 21사관 = 21학년도에 실시된 사관학교 시험

-만들면서 들은 플레이리스트

01. The Circle (Bedman?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2. Extras (Elphelt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3. Symphony (A.B.A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4. The Gravity (Asuka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5. The Town Inside Me (Bridget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6. Radiant Dawn (Queen Dizzy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07. Like a Weed, Naturally, as a Matter of Course (Testament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 08. Mirror of the World (Baiken Theme) - Guilty Gear Strive OST**
- 09. Armor-clad Faith - Guilty Gear Strive OST**
- 10. Mr. Brightside - The Killers**
11. Obsessed - Royal Deluxe
12. Sharks - Imagine Dragons
13. HAPPY - DAY6
14. Drowning - WOODZ
15. Archange - Ace Combat 7 : Skies Unknown OST
16. Five Nights at Freddy's - Five Nights at Freddy's OST
17. Don't Look Back In Anger (Official Video) - Oasis
19. Champagne Supernova - Oasis
18. The Nights - Avicii
- 20 Wake Me Up - Avicii
21. 청년폭도맹진가 - 노브레인
22. 그 겨울 - 대구 FC 응원가
23. 드라큘라(Dracula) - HeMeets

- 락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들했을 뿐입니다.
- 잠깐 지치면 몇 곡 찾아서 들어보세요. 힘찬 수험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4개년 교육청	03P
5개년 사관학교	37P
빠른정답	49P

4개년 교육청(21년 ~ 24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103 -

(가)

나의 마음 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습니다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어느 그 날,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음이여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백 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악(雪岳)에 뻗는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이 나무는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당신이여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겨울밤

- 김남조, 「설목(雪木)」 -

(나)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다.
그렇게 명성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저무는 가을 하늘에 인가(人家)의 정서를 품던
굴뚝 보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두만강 건너는 이사꾼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 앉으니
어머님 한 분만 오시잖아서 ㉢별안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 둘 곳이 없었다.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 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
지 무너져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익기도 어려워
겨울 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다.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돌며

자리를 끌고 한 치 한 치 태양의 돌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大地)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 질 무렵
천장에서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귀뚜라기가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각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라.

- 김광섭, 「겨울날」 -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독백의 방식을 통해, (나)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가)의 '시냇물마저 여위는' 것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용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가)의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은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나)의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견뎌 내는 화자의 모습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나의 마음 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 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설악에 뻗는'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나무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겠군.
- ⑤ '당신'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4. (나)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을 통해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 돌아오지 않아
 그를 기다려 저녁 한길로 나가보니
 보오얀 초생달은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느릅나무 그늘 새로 화안히 불밝힌 우리 집 영머리엔
 북두성좌의 그 찬란한 보국(譜局)이 신비론 ㉠꽃대처럼 지켜
 있나니

때로는 하나이 병으로 눕고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도런도런 이뤄지는 너무나 의고(擬古)*한 단란을
 먼 천상(天上)에선 ㉡밤마다 이렇게 지켜 있고
 인간의 수유(須臾)*한 영위(營爲)*에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듯 맑게 인연 되어 있었나니
 아이야 어서 돌아와 손목 잡고
 북두성좌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 유치환,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

- * 의고: 옛것을 본뜬.
- * 수유: 짧은 시간.
- * 영위: 일을 꾸러 나감.

(나)

냉장고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온순히 꽃혀있지,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애

교외선을 타고 갈곳없이 방황하던 무렵,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초라한 행상아줌마가 팔고 있던
 수십 마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
 마분지곽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마분지곽 위로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그런 노란 것들이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이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나의 눈에 문득 눈물처럼 다가와 고이고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화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아아, 얼마나 슬픈가,
 차가운 냉장칸 맨 윗줄에서
 달걀껍질 속의 흰자위와 노른자위는
 무슨 꿈들을 꾸고 있을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에서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흰자위와 노른자위도
 무슨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엄마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어미닭에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처럼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너희들처럼
 나도 역시 여권이 분실된 사람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⑤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6.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면 ‘복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보면 ‘너희들’은 금전적으로 평가 절하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우리 집’은 화자가 (A)으로 활용된 소재이고, (나)의 ‘냉장고’는 화자가 (B)로 활용된 소재이겠군.

- ① A: 현실에서 외면하고자 하는 공간
B: 이상 실현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근거
- ② A: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
B: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
- ③ A: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공간
B: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
- ④ A: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
B: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한 이유
- ⑤ A: 과거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간
B: 현재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려는 동기

8. (나)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적 화자는 일반적으로 일인칭에 해당하며, 시적 대상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인데,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의미한다.

-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에서는 화자가 ‘보오얀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시각적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각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에서는 화자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 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상황을, (나)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비 걱정을 하’는 ‘우리’를 통해 ‘형제들’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 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나’를 통해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군.

(가)

- [A] 내 곶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B]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 [C]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중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 [D]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 [E] 내 **오월의 곶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蠟)**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0.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③ [C] :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D] :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뿔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110 -

(가)

1

부여안은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훑날린다. 골이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A]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하늘에 나는 후 - 입김을 뿜어 본다. 스러지며 올라간다. 고요 - 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太古)! 태고에 놓여 있다.

2

왜 이렇게 자주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겐가? -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쪽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러라. 한 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 두견도 와 울어라.

[B]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 본다.

3

나는 눈을 감어 본다. 순간 번뜩 영원이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멀하지 않고 오래 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주 나며 죽으며 멀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C]

언제 이런 설악까지 원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로 화창하게 살아 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 박두진, 「설악부」 -

(나)

내 마지막으로 들 집이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산 아니면 또 어디이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육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이겠는가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 온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든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 내고 그곳에 채색된 단청(丹青)을
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穴居)마저 줄어든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가시 되어 일어선다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十字繡)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의 콩밭 누렁이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 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 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내 이 길 억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 둘수
있을까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와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도등 두드려 한
열흘 잠재울 수 있을까

먼저 간 발자국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 또한 뒤이은 발길에 이내 지워지고 말
한쪽 끝에는 대구(大邱)*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해사(銀海寺)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길

- 이기철, 「길의 노래」 -

* 예지 :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뛰어난 지혜.

* 대구 : 경상북도에 있는 대도시.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4.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흠날린다’, ‘뒤덮었다’, ‘빠진다’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는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B]는 ‘산’에서 ‘양지쪽’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 공간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B]는 ‘내 푸른 무덤’에 ‘도라지꽃’, ‘산나비’, ‘멧새’, ‘두견’ 등이 어울리는 모습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C]는 ‘살아 볼 날’을 ‘그립다’와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세계를 떠올려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가닥도’는 화자가 욕심을 조금도 덜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 ② ‘혈거마저’는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
- ③ ‘칠판 앞에서만’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삶에 성찰적 시선이 이르고 있음을 부각한다.
- ④ ‘예지도’는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자연에서는 성가신 것이 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⑤ ‘늘 내일로만’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부각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나)는 무위(無爲)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두 작품은 자연의 가치를 조명하며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고 한 것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항구적으로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달력’과 ‘일과표’가 ‘내 늑골 밑에서 보채’었다고 한 것은,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길’이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다른 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한 것은, 자연의 세계를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산’을 ‘내 영원한 어머니’로, (나)에서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산’을 ‘내 마지막으로 들 집’으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겠군.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깐,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웅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쉼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사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 딜웅배기 :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 북덕불 :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 나뭇손 : '저녁때'의 방언. * 숲 :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 그 방을 생각하며 」 -

1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딱’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① (가)는 ‘권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깨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 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바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A]

2

바윗돌처럼 뚱뚱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四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B]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피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C]

- 신석정, 「역사」 -

(나)

바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 들이 살았다
별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늦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 방이 방 한 칸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하릴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백 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의 그 등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 문태준, 「빈집의 약속」 -

(다)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만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는 듯이 하다가 앞으로 나아와 그 맥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는 물러나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낮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 보니 병은 이

미 나왔습니다. 무엇을 더 고치고 싶은지요?”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중략)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이 있어서 살이 찹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보니 기뻐서 살이 찌고, 소리의 가락이 어여쁘지라 즐거워서 살이 찹지요. 이 네 가지를 몸에 지니면 살찌기를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찹니다.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가난한 데다 신분도 낮고 속대로 엷은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와 거친 밥을 먹습니다. 눈은 다섯 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귀는 다섯 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비(良肥)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구려. 내가 진실로 이 네 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하였소. 어찌 이른바 양비란 것이 있단 말이요?” 의원이 말했다.

“㉡이른바 양비란 것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채우고 인의로 윤택하게 해서 낮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대는 또 초나라 장사꾼의 일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형산(荊山)의 옥 하나를 쌓아 두니 그 값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나라로 갔다가 금은보화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이것과 맞바꿔 돌아왔습니다. 대저 금은보화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부(良富)만은 못합니다. 장사꾼이 그 타고난 부를 잃고 나서는 어느새 밀천 또한 다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두들 초나라 장사꾼을 비웃었지요.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찾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것마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어찌 다만 초나라의 장사꾼 정도이겠습니까? ㉣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탕이 있어 살찌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음을 가지고 병으로 삼지요. ㉤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 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어찌 자기의 형옥(荊玉)을 가지고 금은보화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 김석주, 「의훈」 -

2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인식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다)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할 때,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여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온 민중을 떠올린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온 주체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을 달래꽃은 여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렴풋이 이끌려 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역사를 이어 온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 햇볕, 바람,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2. 마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마음'은 '보드라운'과 연결되어 애상적 분위기를, (나)에서 '마음'은 '오롯하게'와 연결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② (가)에서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나)에서 '마음'은 '착한 사진사'와 연결되어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강조한다.
- ③ (가)에서 '마음'은 '알 수 없는'과 연결되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나)에서 '마음'은 '하릴없이'와 연결되어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마음'은 '조출하게'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나)에서 '마음'은 '몰아쳐'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를 드러낸다.
- ⑤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나)에서 '마음'은 '늘 빈집'과 연결되어 채워졌다가도 비워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23. (다)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지지 못한 것을 얻으려 하다가 '양비'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한다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실재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생생하게 구체화하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관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해 추상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마음에 '수의'를 걸치고 있다는 표현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빗댄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손의 '핏줄'이 뜨겁다는 표현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촉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는 표현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재하는 대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마음 안의 '고요'가 둥그렇다는 표현은, 화자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한 것이겠군.

(가)

문(門)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흰출한 줄기마다
맷방석만한 꽃송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파아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퉁잇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五色)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 조지훈, 「꿈 이야기」 -

(나)

누이여
또다시 은비늘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뿔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경귀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 기형도, 「나리 나리 개나리」 -

2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나)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26.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 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2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음은 실제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잇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잇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가)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A]

돌 위에 앉았다 섰다
 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
 소리 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돼지굴 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

[B]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낫선 곳으로 갔더니라

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
 가슴에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이
 까치 등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림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워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림지 않나
 아롱진 꽃그늘로
 나의 아들이 돌아오라”

[C]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D]

이 며칠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삭이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E]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 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이용악, 「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

* 오들막 : 오두막의 함경도 방언.

* 당콩 : 강낭콩.

(나)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후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썸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돌음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 신경림, 「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

* 칸델라 :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유로 불을 켜서 밝히는 등.

29.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B] : 화자의 심정을 과거 고향의 사물에 투영하여 고향에 친밀감을 느끼고자 했던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고향이 화자에게 건넨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적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화자가 고향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0.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후 같은 어둠’과 ‘휘황한 불빛’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힘상국은 금점꾼들’에서 ‘생떼를 쓰는’ ‘아내들’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멀리 다닐수록’을 ‘많이 보고 들을수록’과 연결하여 이동 범위의 확대가 인식의 성장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를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로 변형하여 화자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구심점이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려진다. (가)에서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던 화자가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귀향을 하게 되지만, 고향이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유랑하던 화자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모성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의 ‘마음의 불꽃’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아픔을 느꼈음을,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고향을 벗어난 곳에서 화자가 느꼈던 삶의 힘겨움을,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바깥세상을 떠돌며 빠져 있었던 재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렸음을,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는 유랑하던 화자가 구심점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가)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
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회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좁는
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
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벌목정정 :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 홀로 우뚝한 모양.

(나)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A]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 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 나게 닦은 마루에 곳곳이 앉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쫓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B]

사랑은 갓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 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C]

- 고재중, 「고요를 시청하다」 -

* 고금 :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

3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술’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 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좇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3.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새암’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된다.
- ②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B]에서 점점 확산하여 ‘덩굴 장미’의 색채와 어우러지며 계절감을 부각한다.
- ③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마당에 ‘붉은 진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 ④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은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되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 ⑤ [C]에서 ‘초록바람’은 ‘오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오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회고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겠군.
- ②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적 상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멧아리 소리 찌르렁’과 (나)의 ‘동박새가 / 딱 한 번 울어서’는 모두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겠군.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축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압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 -

* 별목정정 :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 홀로 우뚝한 모양.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C]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D]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붙어났다는 사실이다

[E]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물왕저수지라는 팻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꽂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긴 가문 날 흙먼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팻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F]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잉어들은 찻찻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발효하는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 최승호, 「발효」 -

(다)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묻기를,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천한 일이운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대저 바다는 죽
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으며, 반드시 바닥까
지 잠겨야 하며, 숨을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찾기를
다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찢러야
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도 없으며, 전
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사람을 잘
무는 나쁜 고기들도 많으며, 바다 밑은 또 매우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
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십여 세가 넘으면
서 얇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익혀 깊은 데로 갑니다. 이십
세에 이르러서야 전복 잡이는 가능하며, 사십이 넘으면 그만
됩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털이 타
고 마르며, 그 살갗은 거칠고 얼룩얼룩하며, 일어나고 기거하
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의 괴롭고 천함은 이와 같으
며,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
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하니, 그 [잡주]가 입을 딱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
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녀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어 같을 것입니다.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
히 앉아서 녹을 먹고, 수레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
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이 우뚝 높고, 조정에
들어가면 부(府)나 성(省)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
(州)나 부(部)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
를 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府省)
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領海)에 있습니다.

(중략)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
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
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 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
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어느 것이 더 낫
습니까?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
서 보건데,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벼슬
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
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
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픔입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
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
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

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 김진규, 「물인설(沒人設)」 -

35.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 (다)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가) ~ (다) 모두 청각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썰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밭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겠군.

37.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나'는 타인이 겪을 일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38. [A] ~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설(設)의 표현 방법 중에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물인설」의 글쓴이는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과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대화 상대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에서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군.

(가)

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개나리는 노란 얼굴 내민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날프다고 / 억누를 수 있느냐
 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보이지 않는다고 / 업신여길 수 있느냐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를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 김광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

(나)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굵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드러내어 젊은이들이 힘겨운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 극단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노력을 그려내고 있다.
- ④ ㉣ :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현대인을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굴에 빚대어 각자의 일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며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는 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에 있음을 보여 주며, 젊은이들도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삶을 극복해 낼수 있는 현대인의 생명력의 근원이 인간 바깥의 초월적 세계가 아라 인간의 내부에서 기원한다는 사유를 드러낸다.

- ① (가)의 ‘노란 얼굴’은 겨울임에도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화자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보이지 않는’은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나)의 ‘볼 수 없는’은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희망을 품고 향해 가는 곳임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현대인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는 힘의 근원임을,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일상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임을 보여 주고 있다.

(가)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나)

큰일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천기누설이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 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제 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랴.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에 지은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

세상에 못 맷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떠꺼머리, 너는 ㉢무얼하게도 알아 버렸구나.

길 비켜라.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준엄한 힘 앞에
세상의 지위썩은 한낱 재미에 불과하리.

지금은 오후 두 시,
그대의 선택은 ㉤이미 온몸이 흔들려
다보탑 아래 깜박 잠든 지귀에게 가 있느니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
네 가슴에 던진 선택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

-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마지막 연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준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물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② ㉡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을 활용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에 대한 질책을 드러낸다.
- ④ ㉣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 ⑤ ㉤을 활용하여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해 단념한 상황을 드러낸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가)는 토끼가 유혹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가)는 두 설화를 재구성하여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노력과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가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그를 동정하여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변용하여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화를 연결한 것으로, ‘토끼’는 일제 강점기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귀토지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목에 멧돌을 달고’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귀의 마음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큰 불이 일어’서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는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

태양아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비러오마. 나의 마음의 무너진 터를 닦고 나는 그 위에 너
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
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
이련다.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훔아 버려라. 나의 시냇물을 쓰
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여 주어라. 너는 나의 병실
을 어족(魚族)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詩).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
워 가며 기다린다.

- 김기림, 「태양의 풍속」-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릿잎 몇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
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 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라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술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4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명령형 종결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4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만 한 번이라도'와 연결하여 '태양'을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불결한'과 연결하여 화자의 '가슴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부정성을 상징하고 있다.
- ③ ㉢: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④ ㉣: '나를 깨운다'와 연결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일깨우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하여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4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내용 면, 형식 면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내용 면에서는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거나,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한편 형식 면에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대립적 시어를 통해 구현한다.

- ① (가)의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화자의 내적 혼란이, (나)의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고 한 것은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아침'과 '밤', (나)의 '하늘'과 '땅'은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것이겠군.
- ③ (가)의 '서러운 나의 시'는 자신의 시가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했음을, (나)의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화자가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가)의 '어두운 병실', (나)의 '저녁만큼 저문 것'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의 '네가 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는 새로운 정신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의 '절벽을 오르'는 행위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드러낸 것이겠군.

(가)

내 오늘밤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이 아득한 바다 속 창망(蒼茫)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웠나니

생(生)은 갈사록 고달프고 나의 몸들 곳은 아무데도 없다 파도는 물려와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 것은 마즈막 ㉠물결소리 먼 해일에 젖어 오는 그 목소리뿐

아픈 가슴을 어찌란 말이나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닌데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돌레를 찰랑이는 접시물 아아 바다여 너 또한 그렇거니

내 오늘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조지훈, 「묘망」-

(나)

[A]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B]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수풀
너울대는 굴참나무잎 사이로
삼팽이 한 마리 지나가고

[C]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볕 쬐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술한 나무와 짐승들

[D]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 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질푸른 숲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E]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 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F]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다)

갑오년 여름, 나는 달촌(達村)에서 예전에 살던 화오촌(花塢村)의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좁고 낮아 드나들 때마다 머리를 부딪혔다. 이때는 날씨가 무더워 마치 뜨거운 화로에 들어간 것 같

았다. 게다가 모기와 파리가 달라붙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웃에 사는 이우열(李友說)과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월송정 숲속에 죽봉(竹棚)을 만들었다. 기둥이 모두 넷인데 셋은 소나무에 걸치고 하나는 나무를 따로 세웠다. ㉣가로목도 넷이고 그 위에는 대나무를 깔아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사방에는 모두 대나무로 난간을 엮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왼쪽에 긴 다리를 만들어 나무로 지탱하고 잔디를 깔아 오르내리기 편하게 했다.

죽봉이 완성되자 이웃 노인들과 보리술을 마시며 축하했다. 그때부터 매일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며 누워 잤다. 항상 솔바람 소리가 서늘하여 시원한 기운이 뼈까지 스며들었다. 더위가 힘을 잃어 감히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모기와 파리가 멀리 가서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마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몹시 통쾌하고 즐거웠다.

저 악양루(岳陽樓)와 황학루(黃鶴樓)는 크다면 크고 제운루(齊雲樓)와 낙성루(落星樓)는 높다면 높다. 그렇지만 그 화려한 건물과 현란한 단청은 여러 장인의 재주를 모은 것으로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다. 어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어찌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남달리 시원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입안으로 중얼중얼하다가 마침내 배를 내놓고 난간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홀연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손 모아 절하고는 다가와 말했다.

“그대의 죽봉이 좋기는 하지만 그대의 안색이 쾌활하지 않은 듯 하니 어찌서인가. 아마도 진흙탕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땅에서 한 자 남짓만 올라와도 통쾌할 것이다.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의 죽봉이 더욱 통쾌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의 죽봉이나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곳이나 진흙탕과 차이가 없다. 그대는 이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알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는 작은 것에 얽매어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속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 슬픈 일이다.

그대의 가슴속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빈 공간도 있다. 누각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창문을 활짝 열 수도 있다. 통쾌하기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눈에 담을 수 있고, 높기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마주 보고 인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장인이 재주를 부릴 필요도 없이 잠깐 사이에 만들 수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즐거움이 이 죽봉에 비할 바 아니다. 소박하고 시원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득실과 영욕, 희로애락 또한 빈 공간 속에서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하지 않고 한곳 이곳에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소나무 그들은 서늘하고 인적이란고는 전혀 없는데 석양이 산에 내려 맑은 이슬이 옷을 적실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탄식했다.

“월송정의 신령이 내게 가르침을 내린 것이리라.”

마침내 기록하여 죽봉기로 삼는다.

-이산해, 「죽봉기」-

4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조적인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목인 '묘망'은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는 뜻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로 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상을 깨닫는다.

- ①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다 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생은 갈사록 고달프고' '몸둘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너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사념이 지닌 크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51.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의 계기가 드러난다.
- ② [B]에는 화자가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한 내용과 대비된다.
- ④ [D]에는 화자가 자신의 바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 ⑤ [E]에서 나타난 화자의 변화는 [A]에서의 화자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5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이다.
- ② ㉠은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의 각성을 방해하는 소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추억을 환기하게 하는 소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다른 대상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이다.

5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사한 집의 특성과 날씨로 인해 매우 힘들었음을 나타낸다.
- ② ㉡: 죽방이 자연물을 재료로 지어졌고 규모가 넉넉함을 드러낸다.
- ③ ㉢: 죽방에서 느끼는 시원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 죽방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⑤ ㉤: 노인과의 만남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54.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은 본질적 특성에서 나아가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주체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공간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 ① (나)에서는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며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 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는 산의 '어디서나' '지저귀는' 멧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에서,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죽방이 통쾌한 줄만' 아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동일한 공간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에서는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송정 숲속에 죽방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새로운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는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에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구체적 공간의 한계를, (다)에서는 '가슴속'의 '누각'에 오르면 '세상의 득실과 영욕'도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에서 관념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군.

(가)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 잎과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빠져져 나왔다.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게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힌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대쳐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얕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꿰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우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이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려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지나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빛 해초의 산림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댕겨 보고도 싶다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피려
죽여버려야 한다.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 생각한다.

- 김기림, 「금붕어」-

(나)

아버지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
가난으로 평생을 찌드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찌다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나이 사십에도 궁핍을 못 벗은 나를
살 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맘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내 사람아, 울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아라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어쩌랴, ㉡바람이 탄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 정희성, 「길」-

5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56.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어느새’를 ‘화장한 따님’과 연결하여 금붕어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1연에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다는 생각은 3연에서 ‘지느러미’가 ‘항아리를 꿰는 일이 없’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3연에서 ‘유리벽’을 ‘국경’이라고 여기는 것은 금붕어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4연에서 ‘붉은 바다’에 대해 금붕어가 떠올린 생각은 5연의 ‘검푸른 비늘을 입’은 상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5연에서 ‘한류를 꿰고 헤엄쳐 가기 위해 6연에서 금붕어는 ‘배설물의 침전처럼’ ‘연령만 쌓’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5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고요한 내면세계를, ㉡은 내면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현재의 안온한 생활을, ㉡은 현실에서의 유혹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은 시적 대상의 내적 성찰을, ㉡은 화자의 외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④ ㉠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식을, ㉡은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각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은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5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품 속 상황에 대응하는 대상이나 화자를 통해 주제 의식이 형상화되기도 한다. (가)는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금붕어를 통해 이상이 좌절되는 양상을 드러내며, (나)는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가)는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나)는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아담하게/꼬리를 젓고 돌아’서서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는 것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해초의 산림속’을 다니고 ‘쓴 매개’를 ‘삼키고 싶’어한 것에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법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에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궁티’를 벗지 못한 ‘나’가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 겠다고 한 것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꿈을 오므려/죽여버려야 한다’는 것과 (나)의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가)

팽이가 돈다
 어린아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우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 살림을 사는 아해들도 아름다움듯이
 노는 아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 없는 눈으로 /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 마치 별세계(別世界)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김수영, 「 달나라의 장난 」-

(나)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딸 인혜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댓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행구고
 ㉤푸른 댓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 복효근, 「 대숲에서 뉘우치다 」-

5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현재형 표현으로 현장감을,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상을 전환하여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6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나'는 팽이가 도는 것을 보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의 고단한 생활과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성찰하고 있다. (나)의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딸아이와 대숲에서 경험한 일을 계기로 되돌아보며,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과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에서 '나'의 생활이 고단함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와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에서 '나'가 팽이가 도는 모습을 보며 주체성이 결여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에서 '나'가 팽이가 도는 것으로부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땃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를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하는 말에서 '나'가 자연에 내재한 풍부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에서 '나'가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6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만큼 팽이를 바라보는 일에 열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팽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5개년 사관학교(21학년도 ~ 25학년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1학년도 사관 -

(가)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울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가도 왕십리(往十里) 비가 오네.

웬걸, 저 새야

올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일어나 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운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데.

비가 와도 한닷새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 김소월, 「왕십리」-

(나)

어머니 장사 떠나시고 다시 맡겨진 송천동

봄날은 골짜기마다 유난히 햇볕 밝게 내려서

날이 풀리면, 배고파지면 아이들 따라

바위 틈에 숨은 게들 잡으러 개펄로 갔다

게들은 바위 모서리나 청태 긴 비탈에

제 몸가득 흰거품부풀려먼수평선바라보아도

해종일 바람 불고 파도 그치지 않아서

㉡송천동, 선뜻 발자국 지워지며 끝없던 모래벌

어느새 그 해 여름 지나고 막막한 가을도 가서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

송천동, 아득한 방죽 따라 구름 몰려와

눈 내려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

누구는 어느 집 양자되고 다시 몇 명은

낮선 사람 따라서 바다 건너떠나갔지만

모른다,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 부질없이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

송천동 송천동 바람 불어 게들 바위 틈에 숨던 곳

- 김명인, 「머나먼 곳 스와니 1」-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쉼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는 일제 강점기 백성으로서 겪는 비애와 한(恨)을 나그네의 심정과 비를 연계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 ‘한 닷새’ 정도 내리는 비는 여정에 지친 나그네에게 쉴 수 있는 시적 상황이다. 반면,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에는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하는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다. 당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드레와 스무날’ 경은 조수가 낮아 바다로 통하는 물가의 바닥이 드러나 조개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때 내리는 비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반면, ‘초하루 삭망’ 때에는 어차피 조수가 높고 물도 탁하여 일하지 못할 때가 많아 비가 와도 그만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온다고 하고, 가도 그만인 때에는 간다고 하는’ 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대 우리 백성들의 서러움이 화자의 심정과 처지에 맞물려 표현되고 있다.

- ① ‘온다’, ‘오누나’, ‘오는’, ‘울지라도’의 연쇄적 변주를 통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군.
- ② ‘한 닷새’ 오는 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과 유사하겠군.
- ③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정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비 맞아 나른해서’와 ‘온다’를 통해 시적 대상이 여정에 방해가 되는 비를 맞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축축히 젖어서 늘어졌다데.’는 비가 다른 공간에서도 내리는 상황을 화자가 전달하며 공간적 확장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부재한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의 상황 극복 의지를,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준다.
- ③ ㉠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서를, ㉡은 과거 상황에 대한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이르지 못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고뇌를 보여 준다.
- ⑤ ㉠과 ㉡은 모두 그 공간과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화자의 인식 전환의 과정을 보여 준다.

4.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난히 햇볕 밝게’ 내리는 봄날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을 통해 ‘어느 집 양자’로 된 화자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 ④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는 화자의 내면에 남아 있는 그리워했던 순간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를 통해 ‘모른다’고 말하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2학년도 사관 -

(가)

┌ 오동은 고목이 되어갈수록
└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A] 오동뿐이라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가 그렇다

┌ **잘 마른 텅 빈 육신의 나무는**
└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

┌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라
└ 수많은 구멍으로 빛어진 삶의 빈 고목에

[B] 어느 날

┌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거문고 소리 들리리니

┌ 거문고 소리가 아닌들 또 어떠랴

[C]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다면

┌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 바람은 쉽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칼날처럼

[D] 햇볕 뜨거워 이승의 한낮은

┌ **육탈***하기 좋은 때

[E] 잘 마른 구멍 하나 가꾸고 싶다

- 복효근, 「 고목 」-

* 육탈: 살이 썩어 뼈만 남음.

(나)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 누에 」-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간표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6.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자연물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 ② [B]: [A]에서 주목한 자연 현상을 유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 ③ [C]: [B]에 나타난 삶에 대한 이해가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 ④ [D]: [C]에서 얻은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회한이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E]: [A]~[D]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화자의 소망으로 집약되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존재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 성숙한 존재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수반한다. 그리고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때,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시련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실현을 돕는 환경이 된다. (가)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시련에 대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 낸 시련을 견뎌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구멍'은 '피리새'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동굴'은 '하늘백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한 마리'가 '세 들어 새끼칠 수있'는 것과 (나)에서 '누에 의왕'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삶'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구멍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날갯짓'을 시작하기 위해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한낮'은 '상처'가 후벼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긴 밤'은 '고통'스러운 '연금술'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육탈'은 '잘 마른 텅 빈 육신'을 위한 비움의 과정인 반면, (나)에서 '변모'는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3학년도 사관 -

(가)

새끼오리*도 헌신작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있도 머리카락도 형곶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늪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
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
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
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백석, 「 모닥불 」-

- * 새끼오리: 새끼줄 조각. ‘오리’는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
- * 갓신창: 가족신 바닥에 댄 창. ‘갓신’은 ‘가족신’의 옛말
- * 개니빠디: 개의 이빨. ‘니빠디’는 ‘이빨’의 평북 방언.
- * 너울쪽: 널빤지.
- * 닭의 깃: 닭의 깃털. ‘깃’은 ‘깃’의 방언.
- * 짚검불: 지푸라기.
- * 재당: 향촌의 최고 어른에 대한 존칭.
- * 초시: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 문장(門長): 한 문중에서 향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 * 갓사둔: 새사둔.
- * 몽둥발이: 몽둥발이. 떨어져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나)

눈 위에주름귀밑에물사마귀
다들 한결같이 낯설지가 않다
아저씨 워태까지 가신대유
한강만 넘으면 초면끼리 주고받는
맥주보다 달빛에 먼저 취한다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찾간에 가득한 고향의 풀냄새
달빛에서는 귀뚜라미 울음도 들린다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순대면서유
쫓기고 시달린 삶이 꼭 꿈결같아
터진 손이 조금도 쓰리지 않고
감도 꽤붙었겠지유 인제

㉡이 하루의 행복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도 적지 않으리
여봐유 방앗간집 할머니 아니슈
돌려 세우면 처음 보는 시골늪은아낙
선물 보따리가 달빛 속을달려가고
너무 똑같아 실례했슈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낮선 데가 하나도 없는 귀성열차

- 신경림, 「 귀성열차 」-

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점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가)와 (나)는 이질적 존재들이 어울리는 순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들은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무화(無化)시키고 하나의 동질성을 획득하면서 어울림의 순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매개체를 통하여 혹은 시공간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가)의 1연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어려운 각양각색의 사물들은 ‘타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모닥불’을 만들어낸다.
- ② (가)의 2연에서 ‘재당’과 ‘초시’로부터 ‘큰개’와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가 무화되어 동질성의 차원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나)의 ‘귀성열차’는 ‘모두들 모르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낮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아우르는 동질화의 공간이다.
- ④ (나)의 ‘한강’은 ‘고향의 풀냄새’와 ‘귀뚜라미 울음’으로 충만한 공간이 ‘선물보따리’의 종착역으로 인식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 ⑤ (나)의 ‘그 저수지에서 불거지 참 많이 잡혔지유’, ‘아직 대목장이 제법 크게 스대면서유’와 같은 말은, 사람들 사이의 이질성과 심리적 거리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 ㉡ 모두에는 대상의 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 ② ㉠과 ㉡ 모두에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과 ㉡ 모두에서 화자의 인식이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는 화자가 느끼는 비애의 정서가, ㉡에는 화자가 잠재고 있는 안도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⑤ ㉠에는 화자 자신의 현재에 대한 성찰이, ㉡에는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4학년도 사관 -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늪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목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명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목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 나무 」-

(나)

그 새들은 흰뺨이란 영혼을가졌네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에서 흰색까지 모두

이 늪지에선 혼하디혼한 맑음의 비유지만

또 흰색은 지느러미 달고 어디나 가웃거리지

흰뺨검둥오리가 **떠들썩** 물을 박차고 비상할 때

날개 소리는 내 몸 속에서 먼저 들리네

검은 부리의 새떼로 늪은 지금 부화중,

열 마리스무마리흰뺨검둥오리가 날아오르면

날개의 눈부신 흰색만으로 늪은 홀가분해져서

장자를 읽지 않아도 새들은 십만 리쯤 치솟는다네

흰뺨검둥오리가 떠메고 가는 것이 이늪을 포함해서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

지금 늪은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거울,

수면은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

- 송재학, 「 흰뺨검둥오리 」-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는 탄식하는 어조로, (나)는 단정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하나의 공간 내에서 묘사의 초점을 바꾸고 있다.
- ③ (가)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상승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는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나)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나무를 만난 '들판'이라는 장소의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수도승'과 연결되어 '늙은 나무'에서 떠올린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나무들이 서 있는 '산마루'가 하늘과의 경계라는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은 '이미'와 연결되면서, '내 안에 뿌리를 편' 나무에 대한 화자의 뒤늦은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나무에서 발견한 자신의 속성을 '뽑아낼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나)의 시인은 늪의 자연물을 보고 듣는 등의 감각적 탐색을 통해 늪과 하나가 되고 있다. 흰뺨검둥오리의 비상은 육신이 세상에 얽매어 있으면서도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상한다. 또한 늪은 긴장과 평온의 연속이라는 삶의 진실을 내보인다.

- ①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의 모습, 흰뺨검둥오리가 물을 박차고 비상할때의 '퍼들꺽'소리 등은 시인이 늪에서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군.
- ② '날개소리'가 '내 몸속에서 먼저 들린'다고 표현한 것은, 시인이 늪과 하나가 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흰뺨검둥오리가 떠메고 가는 것'의 '반쯤은 내 영혼이리라'라는 말은, 날아오르는 새들을 바라보며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존재의 목소리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거울'을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상태로 표현한 것은, 세상에 얽매어 있는 육신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늪의 '수면'이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네'라는 말은, 삶의 모든 국면 역시 긴장과 평온의 연속이라는 진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군.

(가)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땡겨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상 ㉠갈기를 만나서 돌아와 않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 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나)

박수 소리. 나는 박수 소리에 등 떠밀려 조희단 앞에 선다. 운동화 발로 차며 나온 시선, 눈이 많아 어지러운 ㉢잠자리 머리. 나를 읊아매는 박수의 ㉣낙하산 그물, 그 탄력을, 텅, 끊어버리고 싶지만, 아랫배에서 악식*으로 부글거리는 어머니. 오오 전투 같은, 늘 새마을기와 동향으로 나부끼던 국기마저 미동도 않는, 등 뒤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검은 교복에 돋보기처럼 열을 가한다. 천여 개의 돋보기 조명, 불개미 떼가 스물스물 빈혈의 육체를 버리고 피난한다. 몸에서 팽그르 ㉤파르란 연기가 피어난다. **팽이, 내려서고 싶어요.** 등그런 현기증이, 사람떨미가, 전교생 대표가, 절도 있게 불우이웃에게로, 다가와, 쌀포대를 배경으로, **라면 박스**를, 나는, 라면 박스를, 그 **가난의 징표**를, 햇살을 등지고 사진찍는 선생님에게, 노출된, 나는, 비지처럼, 푸석푸석, 어지러워요 햇볕, 햇볕의 설사, 박수소리가, 늘어지며, 라면박스를 꺼안은채, **슬로비디오로, 쓰러진, 오, 나의 유년!!** 그 구겨진 정신에 **유리 조각**으로 **박혀** 빛나던 박수 소리, 박수 소리.

- 함민복, 「박수 소리 1」-

1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겹표의 잦은 사용을 통해 급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이상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명사로 문장을 종결하여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⑤ 감탄사의 사용을 통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상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생겨난 '어두운 내 마음'이 육체의 증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 ② ㉡은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은 '등 떠밀려 조희단 앞에선'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악식으로 부글거리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등 뒤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자신을 주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고통이 시각화된 것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유년 시절의 회상을 다룬 시들은 화자의 과거 경험을 시간적으로 조직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경험 당시의 화자와 경험을 회상하는 화자가 해당 경험으로부터 받은 영향에서도 발견된다.

- ① (가)의 화자는 '어머니'와 '첫사랑'의 상실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소년 시절을, (나)의 화자는 '가난의 징표'인 '라면 박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군.
- ② (가)는 '돌아갔다'와 같은 과거형에서 '준다'와 같은 현재형 시제로 전환하면서 과거 경험과 이를 회상하는 상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는 '선다'와 같은 현재형에서 '빛나던'과 같은 과거형 시제로 전환하면서 현재화된 과거 경험의 회상을 마무리하고 있군.
- ③ (가)에서 '강가'에 사계절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번 댕겨갔다'는 것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겪은 경험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나)에서 '슬로비디오로, 쓰러진'다는 것은 과거 경험의 짧은 순간을 확장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④ (가)에서 화자가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한 것은 아픔을 극복하고자 했던 당시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음을 드러내고, (나)에서 화자가 '팽이'에서 '내려서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상황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드러내는군.
- ⑤ (가)에서 '멍하니 기다려' 보는 행위는 경험을 회상하는 화자에게 과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나)에서 '구겨진 정신에 유리 조각으로 박'힌 것으로 인식되는 '박수 소리'는 과거의 경험이 화자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군.

빠른정답

4개년 교육청(21년 ~ 24년)

1. 1 2. 3 3. 2 4. 5

5. 2 6. 1 7. 2 8. 2

9. 2 10. 3 11. 3 12. 4

13. 1 14. 3 15. 5 16. 3

17. 1 18. 2 19. 4

20. 4 21. 2 22. 5 23. 5 24. 5

25. 1 26. 5 27. 3 28. 3

29. 2 30. 4 31. 3

32. 1 33. 2 34. 5

35. 3 36. 4 37. 1 38. 4 39. 4

40. 3 41. 5 42. 2

43. 4 44. 1 45. 4

46. 4 47. 5 48. 1

49. 3 50. 4 51. 2 52. 1 53. 4 54. 5

55. 2 56. 5 57. 2 58. 3

59. 3 60. 4 61. 2

5개년 사관(21학년도 ~ 25학년도)

1. 2 2. 2 3. 3 4. 2

5. 2 6. 4 7. 2

8. 5 9. 4 10. 1

11. 2 12. 1 13. 4

14. 1 15. 2 16. 4